

# 북한개발소식

# 12

2019 December

통권 170호

| 이달의 주제 |

2019년 결산과 우리의 기도



# CONTENTS

이달의 주제 :

**2019년 결산과 우리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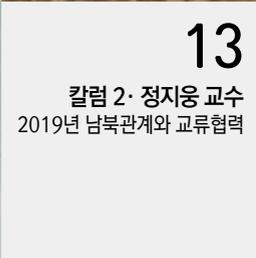
**01**

권두칼럼  
2019년 결산과 우리의 기도



**06**

칼럼 1· 오일환 교수  
2019년  
북핵문제 분석과 전망



**13**

칼럼 2· 정지웅 교수  
2019년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19**

칼럼 3· 유관지 원장  
늘어나고 있는 평화를 위한 논의,  
6.25 전쟁 70년의 해에  
꽃피게 되기를!



**29**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9)



**31**

북한 뉴스



**37**

서평



**39**

북한 기도 제목

# 2019년 결산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19년 한 해도 저물고 있다. 돌이켜보면 짧다면 짧은 1년이라는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음을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특히 한반도의 정세는 의례히 그러했듯이 예측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로 변화무쌍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많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순조로울 줄 알았던 북핵 대화가 지지부진했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진 일들도 있었다. 선교 현장도 기존의 장애물이 줄어들기 보다는 강화되는 형세

속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금 북한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의 통일 선교와 평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한 해 동안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보고자 한다.

## 정치 외교 분야

2019년의 출발은 그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충만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괄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대화의 테이블로 가지고 나오면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평양 선언 채택 등도 주목할 일이었다. 이런 한 해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이들이 2019년에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을 향한 진전을 이루고 남북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열린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정상회담 이틀째인 2월 28일, 양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 결렬을 발표했다. 비록 양



(2월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국 정상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확연하며 정상간의 협의를 통한 탐다운 방식의 협의가 어렵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회담 결렬은 앞으로의 북핵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했다. 양국간의 불협화음이 추후에 실무회담이나 다음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예상도 있었지만 양국은 그 이후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실무회담마저도 열리지 못하는 등 북핵 대화의 정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남한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6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 간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에서 회동을 가지면서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졌다. 정체된 북핵 대화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였고 기대했던 교류 협력 활성화 등도 근시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북미 대화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미 실무회담은 진전을 보지 못했고 북한은 다시금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지지부진하던 실무회담은 결국 결렬되기에 이르고 북한은 단순한 단거리 미사일을 넘어 SLBM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실시하는 등 다시금 대화 이전의 태도로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북한과 미국은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남한 측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 특히 그 중추를 담당할 북미대화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시간내에 드라마틱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려되는 식량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눈치다. 제재 감시망을 피한 북한의 무역 활동도 포착되고 있다. 비록 국지전 또는 전쟁 가능성까지 이야기되었던 전보다는 분명 나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여러 이해관계의 얽힘 속에 혼란한 가운데 있다.

## 사회 민간 분야

이러한 정치, 외교적인 정황은 민간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연초에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 재개와 경협 활성화 등이 기대되면서 각계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준비의 행보가 있었다. 기독교계에서도 관련 NGO들과 교회, 교단들의 대북 사업 참여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부터 이어진 대화 정체로 인해 기대했던 교류와 경협의 재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수적인 교류 협력을 논의하기란 곤란한 일이었다. 게다가 북한 당국 역시 기존의 구제 차원의 도움의 반복이라면 필요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의

모멘텀도 힘을 받지 못했다.

2019년은 특히 탈북민들에게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것 같다. 올해 탈북민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 논란이 될 사건들이 있었다. 7월 31일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수도검침원에 의해 한성옥씨와 그녀의 5세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사인이 아사(餓死), 즉 굶주림이 유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탈북민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다. 대부분 굶주림을 피해, 또 신변의 안전을 위해 북에서 탈출하여 제3국을 거쳐 남한에까지 어려운 여정을 겪은 이들이 탈북자이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굶주림으로 사망한 탈북 모자의 소식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올 11월 7일에는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어민 2사람을 정부가 다시 북으로 추방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탈북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정

부의 설명이지만, 귀순의사를 표한 탈북자이기 때문에 송환이 아닌 남한 국민으로 재판하고 처벌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확한 진상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매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탈북민들에게는 남한에 귀순을 하더라도 북송될 수 있다는, 매우 부정적인 선례로 인식되어 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모습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탈북민 3만명 시대를 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탈북민 지원 및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환기와 함께 탈북민은 누구이며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우왕좌왕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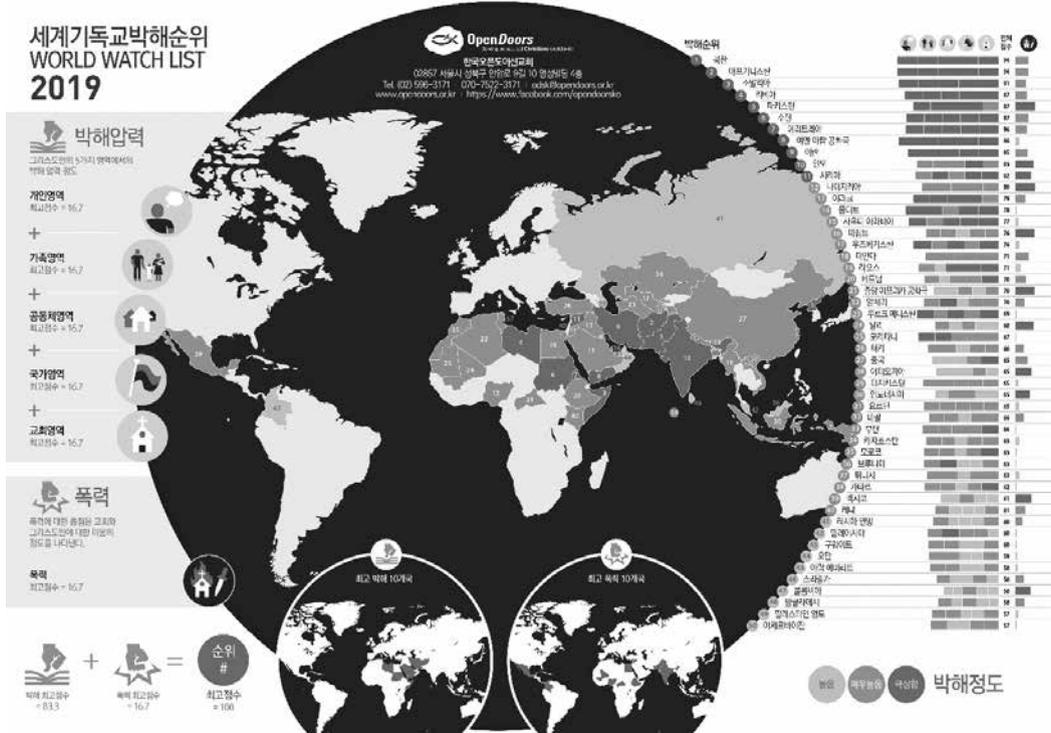
### 교회와 선교 분야

한편 기독교계에서는 통일 선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기대가 이어진 한 해였다. 다음세



〈고(故) 한성옥씨와 아들 김동진 군의 영정〉

세계기독교박해순위  
WORLD WATCH LIST  
2019



〈북한은 가장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알려져 있다. 오픈도어 2019 세계기독교박해지수에서도 북한은 연속해서 박해지수 1 위 국가로 기재되고 있다.〉

대를 위한 통일 선교 캠프가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각 교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 선교학교 및 통일 복지 및 경험 관련 교육과정들이 열리는 등 통일 선교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교단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통일 선교운동 참여이다.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고신, 감리교 등 기성 교단에 통일 선교 담당 부서가 운영되고, 통일과 북한을 위한 기도회와 세미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꾸준히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어 진행되었다. 기존의 통일선교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통일과 북한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선교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되어갔다. 북한 선교의 주요 거점인 중국의 계속된 선교사 추방 정책

과 가정교회 및 삼자교회에 대한 통제 강화로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하거나 강제로 선교 중단 사태를 맞았고, 북한 선교의 주요 동역자였던 조선족 교회의 활동도 위축되었다. 사역 중단 선교사들을 위한 각 교단의 재배치 및 새로운 사역 개척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가운데 새로운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도와 중보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기독교 박해 상황은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체제불순분자로,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탄압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8년 연속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고,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도 세계 최악의 박해국가로 북한을 선정했다. 돌아오는 2020년에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 우리의 기도

올 초 교계나 사회 가운데 평화를 향한 한반도 정세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8년 한 해 동안 전향적 행보를 보였던 북한 지도부와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작용을 통한 북미 대화의 진전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년에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화의 담보상태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나 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여러 차례 경험했던 정치 외교적인 이벤트들의 결말과 실패했던 협상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당사국의 국가들의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주 입장을 바꿔왔고 벼랑 끝 전술과 같은 극단적인 태도도 거리낌 없이 보여주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태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혼란스런 정세 속에서 우리편에서의 최선이 라면 정확한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이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일종의 지구력일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인 남북

통합이 아닌 복음적 가치가 실현되는 한반도에 대한 비전이 있다. 자유롭게 복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적인 가치, 즉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자유와 살롬, 공홀과 공의의 가치가 풍성하게 넘치는 한반도를 꿈꾸며 나아가야 한다. 어떤 정치적 결단으로 인한 변화는 즉각적일 수 있지만,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사회적 구조가 바뀌는 전인적인 통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에, 한반도 복음화와 복음적 통일은 정치적 변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힘써야 할 과제이다.

2019년 한국 교회가 비록 남북관계의 진전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통일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배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비록 선교현장의 상황이 어렵고 인도적 지원을 통한 간접적 선교의 길도 아직까지 막혀있지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관심과 기도로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최우선에 놓고 전진하는 우리가 될 때 2020년은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더욱 충만하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 2019년 북핵문제 분석과 전망

오일환 (숭실대 초빙교수, 기독교통일학회 명예회장)

금년 2019년에는 지난해 3차례의 남북정상 회담과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 데다 금년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의 기조로 보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전망과는 커다란 편차를 보이며 진행되었다.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전망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발생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9년도 김정은의 신년사는 경제와 대남 및 대미 관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김정은이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대남 및 대미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였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은은 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밝히면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

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중의 4자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했다.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재와 압박에만 매달린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금년도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았다. 그렇지만 이들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예상과는 달리 북미관계의 개선이나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은 기대 밖이었다.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있었지만,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즉,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나버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를 넘어서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고, 김정은은 유엔안보리의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합의 결렬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제재가 쟁점이었다.”며 “(북한이) 제재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노딜’ 원인과 관련하여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3월 1일 새벽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측이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노딜’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 측에 전가했다. 그는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노딜’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의 폐기 요구, 즉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 $\alpha$ )의 비핵화 조치’ 요구,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체계 누락 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의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로 트럼프와 관련한 미국 국내정치 문제와 결부시켰다. 하노이 회담 당시 워싱턴의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는 트럼프의 옛 개인 변호사였다가 등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을 돌린 마이클 코언을 증인으로 불러 ‘트럼프 청문회’를 열고 있었는데, 트럼프로서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더 큰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로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였고, 핵을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노딜’로 끝나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로서는 북한 측의 요구에 선뜻 합의한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북미관계는 약 4개월 후인 6월 30일 트럼프의 방한으로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함으로써 양측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 회동에서 북미 정상은 실무협상의 재개를 예고했다. 이후 북미 간에 물밑접촉이 있었고, 그 결과,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각각의 대표로 하는 북미 비핵화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지난 2월 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

노딜’ 이후 7개월여 만에 열리는 북미 회담이었다. 그런데 이 실무회담 역시 상호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협상 라인에서 강경파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북미 간에 대화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으나, 결국 파행으로 귀결되었다. 트럼프는 ‘대북 강경파’의 상징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고, 김정은도 대미 강경파로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총괄해왔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일전선부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를 정상 외교에서도 배제하였다. 대신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외무성 인물들로 대미 협상팀 진용을 새롭게 꾸렸다. 김영철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네 차례의 북중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하는 등 막강한 외교력을 발휘했었으나, 하노이 회담의 ‘노딜’에 따른 문책성 경질을 피할 수 없었다. 북미 비핵화실무회담이 끝난 후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며 회담 결렬의 원인을 미국의 탓으로 돌렸다. 또한 김명길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가 선행될 때야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선(先)적대시정책 폐기, 후(後)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기존의 동시이행과는 상반되는 다른 의제를 제기한 셈이며, 미국으로서의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인 것이었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향후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며, 북한은 이렇게 번 시간을 핵무기와 미사일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북미 간의 거듭된 파행에 기인하는 지리한 협상은 북한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어 핵전력의 완성도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시기적으로 보아, 3차 정상회담에서는 일정 성과를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원하는 트럼프는 어떻게든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결실을 이끌어내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하노이 ‘노딜’로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김정은 역시 2020년을 목표로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인 금년에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입장이다. 그런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보다도 김정은이 더 다급한 모양새로 보인다. 10월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북한과 미국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가 굳건하다며, “이러한 친분 관계에 기초해 조미(북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



〈북미 실무회담 결렬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김명성 북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북한이 지난 8월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사포 발사 장면으로 바뀌형 이동식 발사대(TEL)와 ‘2열 4개’의 발사관이 뚜렷이 보인다.〉

력이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흘 뒤인 10월 27일에는 강경파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이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만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다만 “조미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 덕분”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위한 3차 정상회담 개최 지연의 책임을 미 외교 관료들에게 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후 11월 13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군사 훈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북한의 김영철은 다음날 1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리해하고 싶다”고 응수했다. 트럼프는 11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곧 보자”고 하면서 “당신(김정은 위원장)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곧 보자”고 한 전자는 연내에 실무협상을 개최하겠다는 의미로, 후자는 실무선에서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실무협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북미 양측의 입장차가 커 단시간 내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연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여전한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 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릴 것이고, 그만큼 남북한 간에 경제 교류·협력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는 만큼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북한이 생산한 핵탄두와 이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계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괄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처럼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확실한 체제보장이라는 보상 없이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재래식 전력 경쟁에 있어서 현격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열세를 느낀 나머지 지금까지 비대칭 전력 강화에 집착해 왔다. 3대에 걸쳐 ‘수령절대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대내적으로는 전체주의적 독재 강화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무력 강화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무력 강화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핵무기 및 미사일의 고도화와 같은 비대칭 전력의 강화로 표출되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숫자는 대체로 2019년 6월 현재 대략 20~3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군축운동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과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서 분석한 결과이며 언론기관들도 대체로 이 수치를 인용하고 있다. 특히 군축운동연합은 북한이 20~40kg의 플루토늄과 250~5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6~7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으며, 모두 30~60개를 더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물질 비축량 증대와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2020년에는 많게는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 운반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대기권 재돌입을 제외하고는, ICBM을 거의 완성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즉, 이전에 기술적 한계로 평가되던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는 이미 완성했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다만, ICBM의 핵탄두가 목표지점

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이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2017년 7월 28일에 감행한 ‘화성-14’형 시험 발사 이후 ICBM의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화성-14’는 최대 사정거리 10,000km까지 타격할 수 있어 뉴욕을 사정권 안에 두는 ICBM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에 시험 발사한 ‘화성-15’는 최대 사정거리 13,000km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상태로 최대 사정거리까지 성공적으로 비행할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핵탄두를 효과적으로 타격권에 발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은 SLBM인데, 북한은 2019년 7월 23일, 새로 건조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공개했다. 핵탄두를 탑재,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은 타격 목표에 가까운 지점까지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핵탄두가 타격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상대방의 요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3면이 바다에 접한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북한이 비대칭전력을 갖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길로 쉽게 나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미金正은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난해(2017년) 각종 핵운반 수단과 핵무기 시험을 단행해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올해(2018년) 핵탄두와 탄도로켓을 대량 생산해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2월 27일 미국 NBC방

송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와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특히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가 침략에 대항하는 최상의 보험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 NBC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크리스티나 배리얼 연구원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 쪽으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북한의 핵전력 보유의 목적이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북한체제의 존속을 위한 것이겠지만, 중국적으로는 대남적화전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한국이 재래식 무기가 북한을 압도할지라도 북한이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간의 협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채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확고하게 확보하든지, 그것도 힘들다면 생존권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핵무장을 해야 할 줄도 모를 일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 앞에서 우리의 안보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군철수로 인해 미군의 전쟁 억지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석학 아롱(Raymond Aron)은 자신의 저술 『평화와 전쟁(Paix et Guerre, 1962)』을 통해 이상주의자들 특히 평



〈프랑스의 철학자 레몽 아롱 (1905-1983)〉

화주의자들의 핵무기 보유 포기 주장은 도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권력과 힘을 사용하는 독점을 행사해 왔으며, 국가는 생존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하며, 세력균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아롱의 지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는 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 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고린도후서 10:3-4)의 성경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기도에 매달려야 할 때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19년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정지웅 (코리아통합연구원, 아세아연합신대 교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육성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남북합의사항 철저 이행 및 협력·교류의 전면적 확대 발전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및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의사를 적극 표시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호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해서 “국제제재만 해결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정상이 마주앉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스웨덴에서 남·북·미 실무협회가 이루어지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당시 많은 이들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및 남북관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정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착에 있어 큰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1월 30일 우리 정부는 한강 하구 남북공동이용수역 해도(海圖)를 북측에 전달하고 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 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였다. 1월 31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도로협력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2019년 초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IOC는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협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회동한 남북미 정상〉

의하였다. 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되었다고 말하여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2월 25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를 교환하였다.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북, 혹은 남북중이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는 순풍을 단 듯하였다.

그러나 2월 27일에서 28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없는 결렬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막고 말았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폐기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전면해제가 아니라 일부해제, 유엔제재결의 11건 가운데 16~17년 채택된 5건,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이라도 먼저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영변 핵폐기 +  $\alpha$  문제로 합의 없이 결렬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4일 NSC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 확인 및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 신한반도체제 개념 정립

및 비전 마련”을 주문하여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고민하였다. 북미관계는 교착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3월 21일 제3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하여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지원(안)」,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총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3월 22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였고 정부는 북측의 철수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북측의 조속한 복귀 촉구를 하였으며 다행히 북한은 3월 2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부인원을 복귀시켜 연락대표간 협의가 재개되었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즉 3월 28일 통일부는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1일부터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 지뢰제거 등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준비를 시작하였고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선박항행 관련 우리측 지역 민간선박 시범항행 등을 추진하였다. 4월 3일에는 국내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13개소의 개보수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4월 3일에는 제30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개최되어 「DMZ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이 심의·의결되었다. 4월 5일에는 강원도 고성인 산불과 관련하여 남북이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4월 5일~12일에는 남북태권도 시범단의 유럽 합동공연(빈·로잔·제네바)이 있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이라도 하듯 4월 11일에서 12일까지 개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

원장은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있어도 북남선 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입장”과 “미국이 올바른 자세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여 정세 안정에 희망적 메시지를 던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북관계는 큰 무리가 없어 4월 17일 국회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신임 의장의 취임 축하서한을 전달하였고, 4월 22일 국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4월 22일부터 2주간 실시된 한미연합공중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하였다. 4월 25일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며,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대화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후 5월 4일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였고, 5월 9일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다.

그러한 와중에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5월 30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공식 통보함에 따라 우리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남북 협력 추진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여 공동대응하고자 하였다. 6월 5일 열린 제30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WFP·UNICEF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원안이 의결되었다. 6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전달하여 북미대화 재개의 불씨가 살아났는데 이는 남북관계에도 청

신호가 된다. 이회호 여사가 서거하여 6월 1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조화를 전달하여 이른바 조문 외교로 남북관계는 이어졌다. 6월 19일 통일부는 대북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6월 28일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원안이 의결되었다.

한편 잘 알다시피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전격적으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는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였다. 그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루어짐으로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3일 미국의 유엔 회원국 대상 ‘대북제재 결의 이행 촉구’ 서한 발송(6.29)에 대해 북한 주유엔 대표부는 “대화 중에도 적대행위에 필사적”, “제재해제에 관심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7월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6.12 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압박임”을 천명하였다. 이후 북한은 7월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7월 31일 함남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8월 2일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하여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교착되기 시작하였다.

8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섰는데 잇다른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8월 5일 우리 국회는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8월5일부터 20일까지 한미연합훈련도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8월6일 북한은 황해남도 과일군 인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2발을 발사하였으며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한미간 합동군사연습은 6.12 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8월8일에는 “남조선당국은 북남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이러한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지 않고 벌려왔으며 최신 전쟁 장비 반입 책동에도 집요하게 매달려왔다”라고 우리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였다. 8월 10일 북한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2발을 또 발사하였다. 우리정부도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북한은 8월 11일 외무성 담화로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이러한 대화는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군사연습에서의 적이 우리로 되어있는데, 군사연습을 걷어치우든지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사이의 접촉자체가 어려울 것”이라 강조하여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는 듯 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북한 조평통은 “삶은 소대가리가 크게 웃을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연설에 대해서도 “망발을 늘어놓았다”거나 “웃겨도 세계 웃기는 사람”, “보기 드물게 뻘뻘하다”는 등 인식공격성 발언까지 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8월 16일 또 북한은 강원 통천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 대해 8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멈추지 않고 8월 24일 함남 선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다. 8월이 가장 남북간 경색국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난에 대해 자제하면서 포용하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주었다.

9월 들어 약간 새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9월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에는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미사일 2회를 발사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재지도하면서

한미를 압박하였다. 9월 24일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였고 10월 2일, 강원도 원산 북방일대서 동해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하였다.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후 10월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 정치일정에 조미대화를 도용해보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면서 “조미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지임”을 강조하였다.

북미관계의 난항은 남북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10월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 예선전」 경기는 사상 초유로 관중 없이 격렬하게 치러졌다. 나아가 10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면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짝 들어내도록 하고 ...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하면서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최고 권위자의 한마디 말에 10월 25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철거 관련 통지문을 전달해 왔다. 우리측은 10월 28일 금강산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10월29일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문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30일 북한의 국무위원장은 대통령의 어머니 故 강한옥 여사 별세와 관련하여 대통

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하였지만, 다음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또 발사하였다. 그나마 조의문을 보낸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위에 11월 15일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실시할 계획인 대대급 이하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여 북한과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북한은 12월이 시한이라 하고 미국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21일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아세안 초청진서를 한국정부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김 위원장이 부산에 나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불참 의사를 밝혀 왔다. 이처럼 현재 남북관계는 과거처럼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경색국면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처럼 2019년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지속되었는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운영, 남북태권도 시범단 국제기구 합동공연이 있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이루어졌으며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총회 남북종교인 공동행사도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이루어졌다.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대북물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대북지원 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 남·북·국제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금, 북한 영양지원, 모자보건 사업, 대북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도 이루어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쪽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23일 보도했다.〉

다. 남북경협을 위한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 지원, 대북 반출입물자 전략물자 전문관정업무 위탁 지원, 남북경협, 교역,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 DMZ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기금,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등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은 경상사업부문에서 2018년도는 189,571백만 원이었는데 2019년 10월말 현재는 56,360백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산가족교류는 2018년 당국차원에서는 생사확인 1996명, 방북상봉 833명, 민간차원에서 생사확인은 7건, 서신교환 16건, 상봉 1명이 이루어졌지만 2019년 10월 현재까지 당국차원에서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겨우 민간차원에서 생사확인 2건, 서신교환 16건, 상봉이 1건 이루어짐으로 남북관계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8년도에는 남북회담이 36회나 개최되었으나 2019년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것 외에는 남북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대북제재 국면으로 2019년에는 2018년에 비

해 남북교역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남한의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살리기 위해 큰 현금(벌커페시)이 북한에 들어가는 단체관광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금강산을 방문하는, 이른바 창의적 해법을 펼쳐서라도 금강산관광을 살려 남북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작년 한해 경색된 남북 교류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잘 유지하되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뱀처럼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를 풀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각자 영역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늘어나고 있는 평화를 위한 논의, 6.25 전쟁 70년의 해에 꽃피게 되기를!

-2019년 한국교회의 통일선교활동을 돌아보며-

유관지 (NKC연구원 원장)

통일선교는 한국교회의 숙명적인 과제이다. 2019년에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활동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 '2020년의 통일선교'라는 내비게이션에 한국교회는 무엇이라고 입력해야 하나? 다시 말해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올해의 통일선교 일지를 돌아보며 이 문제의 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한다.

##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청년과 청소년, 나가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선교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몇 해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기독교통일포럼에서는 매년 연말 그 해의 통일선교 활동 10대 뉴스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2016년 10대 뉴스의 일곱 번째가 '청년, 통일선교운동의 전면에 서기 시작하다.'였고, 2017년의 두 번째는 '기독교청년이 통일세대로 부상하다'였으며, 작년에는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세우려는 노력이 계속되다'였다.

올해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활동을 돌아보면 통일선교 활동의 세대교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통일선교 집회를 줄기차게 열어오고 있는 에스더기도운동은 1월에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제16차 청소년 JESUS ARMY를 열었고, 이어서 영동에 있는 백화산수련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JESUS ARMY'를 열었다. 매년 연초에 부흥한국 등 통일선교 다섯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통일비전캠프가 올해로 12회를 맞이했는데 이 캠프의 참가자들은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남북사랑학교가 주최한 제1회 통일세대 희망캠프를 비롯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선교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청년 주빌리가 원코리아 넥스트 목회자통일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청년연합수련회와 주니어주빌리 청소년통일캠프, 그리고 원코리아넥스트연합기도회 등이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은 월례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반도평화에 관심 있는 석박사 과정 연구자 및 2030 통일관심자들을 위해 2~3개



〈2019 통일비전캠프 예배 모습 (통일비전캠프 홈페이지)〉

월에 한 번씩 소규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현상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2월에 열린 제9회 동아시아기독교청년대회에 참가한 한·중·일 청년 90명은 파주의 오두산통일전망대를 방문하여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계지도자들도 통일운동 세대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장 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2월 15일에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는 신앙인의 자녀들이 통일을 꿈꾸며 통일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매스컴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된다.

통일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통일선교 활동의 중심에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더 활발해져야 할 일이다. 올해의 10대 뉴스에도 통일선교의 10대 뉴스에 통일선교의 세대교체 문제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몇 번째가 될 지 궁금하다.

## 깊어지는 연륜, 나잇값을 하고 있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통일과 관련된 일들은 정부의 전유물이어서, 45년 전에 출범한 기독교북한선교회(처음 이름 씨앗선교회)를 제외하고는 통일선교단체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 통일선교 단체들이 고고지성(呱呱之聲)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단체들이 이제는 청장년기를 맞이하거나 유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기아대책이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콘서트를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가졌다. 구제구호 NGO인 기아대책은 사업항목에 ‘북한사업’ ‘북한아동 개발사업’ ‘북한지역 개발사업’ ‘통일준비’를 명시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국제사랑재단은 10월 2일에 좌담회를 갖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나아갈 길을 모색하면서 ‘민족통일지원’이 재단 설립 정신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어린이 돕기에 더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탈북민구호와 양육활동의 선두주자인 통일소망선교회도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평화통일연대는 내년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난 6월에 걸은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모색하는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통일선교 단체들의 연륜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단체들이 자신의 좌표를 확인하면서 연륜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나가서는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운동이 또한 그래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통일선교 활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볼 수 있는 모습의 하나가 지방에서의 통일선교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부산 북한선교 복음컨퍼런스(2월 19일~21일, 대청교회), 부울경(釜蔚慶)통일구국 큰 기도회(7월 4일, 부전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행사들이 계속 열리고 있고, 국토의 남단인 제주에서는 MCJ(Mission China in Jeju)가 주최한 임현수 목사 초청 간증집회(3월 13일, 비전교회)와 작년 5월에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서 열린 '통일을 위한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의 제주 참석자들이 제주 열방대학과 서귀포 태초동산 감귤농장에서 갖고 있는 열방과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회에 이어 여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6월 6일부터 28일까지 제주, 춘천, 목포, 서울 강서, 전주, 광주, 대구, 고양, 통영, 대전, 부산, 수원을 순회하며 전국연속 통일기도회를 가졌다. 통일일꾼 양성을 위한 북한선교학교들이 처음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열리다가 지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뿌리를 잘 내려 부산이 제8기, 광주가 제7기, 대전이 제3기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에서의 통일선교 활동은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그 맥박이 더욱 힘이 있어지는 느낀다. 통일선교 운동이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이고 더욱 그래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방화가 이미 무르익었고, 남의 각 지방들이 북의 각 지방들의 복음화를 담당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 북녘의 종교상황, 변하지 않네!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1월 16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2019 세계기독교박해보고서(World Watch List) 발표 모임'을 가졌는데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올해도 변함없이 북한이 꼽혔다. 북한은 18년째 박해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슴 아픈 '부동(不動)의 1위'이다.

6월 21일에는 미 국무부가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5월초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CIC)로 제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수용하여,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자유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필자는 북한의 종교실태를 '명자실탄(明白實彈)', 네 글자로 요약해서 말한다. '명목상으로는 자유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탄압'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명자실자'(명목상으로도 자유, 실제적으로도 자유)로 바뀔 날은 언제일까?

그런 가운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감시기구가 탈북민 1만33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월 18일에 발표한 「2018북한종교

자유백서」가 한 줄기 소망을 준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 중 172명(1.8%)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했다고 답했으며, 160명(1.2%)은 종교활동에 몰래 참가했고, 649명(5.0%)은 타인의 비밀종교 활동을 목격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해는 신앙을 꺾지 못한다.

북녘의 ‘국가교회’들도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다. ‘국가교회’는 필자가 조그런, 평양신학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북녘에는 530개 내외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 가정교회들도 국가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 있다. 평양신학원 졸업생들이 가정교회들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교회라는 이름의 근거는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국가가 교회건물을 무상으로 지어 주고 종교인들의 생활도 보장해주고 있다”는 말에 있다. 북녘의 국가교회는 ‘이름 부자 교회’이다. 사람에 따라서 공인교회, 지상교회, 체제내 교회, 사회주의형 교회, 주체형 교회, 위장

전시용 교회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말이다.

7월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EFK)에는 강명철 위원장을 비롯한 조그런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조그런은 남의 NCKK, WCC,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CCA), 영국감리교회(MCB) 등 8개 회원 교회들과 함께 이 포럼의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조그런은 7월에는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NCCJ) 총간사와 동아시아화해평화위원회 위원장,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총회장 등을 초청하였으며 8.15를 앞두고 NCKK와 한반도평화통일공동기도문을 발표했다.

잘 알려진 대로 북녘의 국가교회들은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가 관할하고 있다. 김양건 통전부장이 2015년 말에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는데, 후임이 강경파로 유명한 김영철이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는데 올해 4월 10일에 열린 로동당 중앙



〈지난 7월 9일 - 1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반도에큐메니컬 포럼 기념사진. 위 행사에는 강명철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등 북측인사들도 참여했다.〉

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대남교류 업무 경험 많은 장금철 부부장이 통전부장에 임명되었다. 필자는 탈북외교관 태영호씨로부터 “북의 종교정책은” 북의 종교정책은 위낙 확고한 것이어서 통전부장의 교체는 종교정책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는데 그래도 세미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 김영철 통전부장 시기에는 「로동신문」에 종교관련 기사가 가물에 콩나기식으로 실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 빛, 그리고 그늘

앞에서 말한 한반도평화연구원을 비롯하여, 기독교통일포럼, 평화통일연대 등 여러 통일선교 단체들이 열고 있는 월례모임이 정착되고 내실화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밝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다. 바른 길을 찾으며 꾸준히 걷다보면 어느 사이에 목표점에 이루게 되는 법이니까 말이다. 올해는 ‘DMZ평화인간띠 운동’ ‘한강 하구 평화선포기도회’을 비롯하여 통일선교 활동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형태를 보였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의 해인데 3.1운동 100년과 통일을 주제로 한 행사도 몇 있었고, 작년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1주년을 주제로 한 행사들도 있었다. 각 교파의 본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된 행사들도 늘어났다. 대북제재 가운데에서도 유진벨 재단이 결핵구호 활동을 계속하며 북한결핵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디아스포라들의 통일선교 활동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제통일

전문가네트워크 주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시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복음통일 전문 세미나 및 연합기도회’가 열렸는데 ‘미주 디아스포라의 대결집’이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통일선교를 위한 대결집을 말한다. 이어 통일선교에 있어서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들이 줄을 이어 열리고 있다.

기독교 관련 빌딩들이 여럿 자리 잡고 있는 종로 5가(연지동)에 등지를 트는 통일선교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하고 싶다. 1970년대 초에 세워진 한국기독교교회관에는 한반도 평화연구원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한정협),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외 통일선교 활동을 직,간접으로 하는 단체들이 여럿 입주해 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뒤쪽에 장로교총회 100주년기념관이 올해 9월에 준공되었는데 지난 9월 5일에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와 포터미션이 여기에 입주했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의 새 상임위원장이 된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원로)의 크로스로드가 이 건물 4층에 있어서 주빌리 관계 모임도 여기에서 많이 열리고 있다. 이 건물에는 건물주인 예장 통합측의 통일선교 기구들도 두엇 자리잡고 있다. 평화한국과 통일선교아카데미는 지난 11월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으로 이전했다. 종로 5가는 ‘한국교회의 정치 1번지’라는 말을 듣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중요한 통일선교단체들이 포진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흐름이 통일선교를 중심으로 바뀌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져 본다.

반면 그늘진 일들도 적지 않았다. 무슨 속셈에서인지 북한이 미국과 남한을 향해 거친 언

사들을 마구 쏟아내고 문을 닫아 버림으로써 대북지원을 비롯한 여러 활동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그늘이다. 연초만 하더라도 통일선교에 대한 희망찬 설계도가 여럿 제시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1월 8일에 가진 「국민일보」의 “신년대담”에서 ‘평양심장병원 공사가 재개되고 연말이 되기 전에 준공식을 갖게 되기 희망한다. 재개가 확정되면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을 방문해 현장을 돌아보고 근로자들도 격려하려고 한다.’고 했고, 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당시)은 1월 10일에 서부연회 신년하례식에서, ‘감리회가 원산 지역 나무 심기에 참여하기로 하고 정부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어 25일에는 북한 나무심기를 2019년 6대 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는 산림청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북한 민동산 녹화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으나, 이 두 일을 비롯해 여러 일들이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 있다.

억류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염려도 갖게 되는 김정욱 선교사 등의 문제도 그들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활동가들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 거의 석방되어 귀국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평화, 평화로다

2019년은 통일선교의 뚜렷한 이슈가 없었던 해였다. 2015년에는 ‘분단 70년’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고, 2018년에는 체제분단 70년, 그리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기점으로

로 한 대북관계의 열탕화(熱湯化)가 있었으나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다. 대북관계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냉탕이 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해서 뚜렷한 결집점이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평화와 관련된 발언과 행사들이 다른 해보다 많았다.

1월에 열린 서울 YWCA 제97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이유림 권사(정동제일교회)는 “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 세대의 평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평화운동 등에도 주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3월 7일에는 NCK 소속 교단 목회자와 신도 30여 명 사순절 평화순례로 강원도 철원의, 로동당사와, 월정역, 소이산을 방문했다. NCK는 6월에는 러시아, 터기, 그리스 등 정교회 3개국을 돌며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8월에는 WCC와 NCK 화해통일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주관하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PJP)가. 16개국에서 온 기독 청년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같은 달에 NCK 화해통일위원회가, 서울복음교회에서 ‘동북아시아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시국기도회’와 ‘2019 세계교회와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

7월에는 초교파 기독NGO인 평화통일누리가 발족되었는데 대표로 선출된 홍성표 목사(예수제자교회)는 “보수와 진보 이념에 상관 없이 식사자리나 교육현장에서 통일이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공감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1월에는 한신대학교 글로벌 평화센터가 국내외 평화의 리더십을 육성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VOA 자료사진)》

하고 평화를 선도하기 위한 대학이 되겠다는 포부와 의지를 밝히며 개원했다. 11월 18일에 열린 NCKK의 제68회 정기총회는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 34: 14, 공동번역) 말씀에 기초해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맡기신 절대적인 사명이 ‘평화’임을 인식한다”고 선포하며 진행되었다.

내년(2020년)은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다. 내년 통일선교 분야의 중심 이슈는 ‘6.25 전쟁 70년’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올해 부쩍 늘어난 평화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그같은 내년에 꽃을 피었으면 좋겠다. 이미 그런 발언들이 늘어나고 있다. 9월에 열린 예장 통합 제104차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된 김태영 목사(부산 백양로교회)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6.25 70년을 맞아 범 교단 차원의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NCKK 이흥정 총무는 10월 2일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한국전쟁 70년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 차원의 기도회가 WCC와 NCKK 공동주관으로 내년 3월 15일부터 8·15 광복절까지 5개월간 국제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또 내년 6월 23일에는 워싱턴 DC 국가

대성당에서 화해 예배, 7월 27일(정전협정일)에 맞춘 민간 차원의 판문점 종전 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선포식, 미장로교단(PCUSA) 총회 기간 중 조그런 초청 한반도평화예배 등이 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되는 새벽에 임진각에서는 복음통일의 염원을 담은 기도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임진각기도회는 몇 해 전부터 주빌리의 서울·고양파주·대구모임과 통일소망선교회, 원네트워크가 참여하여 열리고 있다.

6. 25 전쟁 70년인 내년의 1월 1일 임진각 기도회에서는 평화를 위한 더욱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강을 건너고 철조망을 넘어 북녘의 산하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

# 신앙의 자유를 찾아 (9)

●  
마리아

재판 후 열흘 간의 의미 없는 상소 기간이 지났다. 예심 때 담당 형사에게 13년 형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4년형에 그쳤다. 참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서 나온다는 기약을 할 수조차 없는 이 길을 걷는다는 심정에 북받쳐 밤마다 차가운 감방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너무나 그리웠던 남편은 면회한 번 안 왔다. 필요한 옷도 있고 물건도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추었다. 기다리다 지칠 때 즈음 담당 예심원이 나에게 면회 물품만 전달해주었다. 알고보니 만나지 못하게 막은 것이었다.

봄이 시작될 무렵 풍막이 쳐있는 호송차를 타고 족쇄에 묶여 두 시간 정도 이동을 했다. 도착한 곳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화소였다. 웬지 낯익은 이 곳은 10년 전 이웃 할머니 부탁으로 아들 면회 음식을 대신 전달해주었던 곳이었다. 그 때는 눈이 허리만큼 왔던 한겨울이었다. 이 곳에 내가 죄수로 오다니 믿기지 않았다.

정문에 내려서 십 분정도 걸으면 2 미터가 넘는 철 대문이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아주 무겁게 천천히 열리는 육중한 철 대문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나올 수 있

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았다. 철 대문 옆에는 ‘도주는 자멸의 길’이라는 문구가 커다랗고 빨갭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또 2 미터가 넘는 높이에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아주 요란했다. 새들이 앉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떨어져 죽었다.

이후 몸 검신이 시작되었다. 오랜 구류장 생활 동안 지긋지긋하게 해왔지만 여전히 수치스러웠다. 가지고 온 옷들은 모두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실상 교도소 경찰들도 생활이 어려워 압수한 물건들 중 좋은 물건들은 빼돌렸다. 그 정도로 북한의 경제가 참으로 어려웠다.

밖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있던 교화소 죄수들 중 몇 명이 눈에 띄었다. 오후가 되었지만 일하러 나가지 못한 열외 죄수들이 마당에 소집된 것이다.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루하고 누추한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뼈에 가죽을 씌운 마냥 앙상한 그들을 보면서 절망감이 들었다. 머리에는 전장의 간호사처럼 흰 수건을 썼는데, 그 모습을 보니 웬지 흉투성이 전쟁통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북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을 때 교화소에서 죄수들에게 회색 죄수



복을 모두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 사정도 좋지 않을뿐더러 죄수들도 많아져서 다른 방식으로 죄수들의 옷을 마련한다. 죄수들이 처음에 입고 왔던 옷들을 모두 세 부분으로 자른 후 서로 바꿔서 다시 깎는다. 그렇게 하면 흑시나 도주해도 누가봐도 죄수라는 것이 눈에 확연히 띈다. 삼색 윷도리와 삼색 바지를 입은 나의 모습이 참 처량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뼈다귀만 앙상히 남은 기존 죄수들처럼 흰색 수건을 머리에 쓰고 머리카락은 귀 위까지 깎았다. 공민권이 박탈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수증을 제출한 뒤로 사람 취급도 받지 않으니 더군다나 남자 여자를 구분할 필요조차 없던 것일지도 모른다.

처음에 교화소에 들어왔을 때에는 할 것이 참 많았다. 삼색 옷을 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덕기준, 일상생활 기준표 등 여러가지 규율을 암기해서 검사를 받았다. 낮에는 공부를 할 때도 있었고 외부작업도 나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깨진 사기 세면대 같은 곳에 물을 담아 세수를 했다. 더운 물이 없어서 한겨울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얼음같은 물로 세수를 했다. 밤 10시까지 몸 또는 정신을 혹사시켰다. 다행히 감방 바닥은 예전에 있었던 구류장보다는 따뜻한 편이었다. 아무래도 장기수들은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야하므로 기본적인 설비는 갖추어져있는 것 같았다. 주변이 다 산이고 나무밖에 없어서 그런지 땀나무를 해서 아궁이를 때면 바닥이 따듯했다.

이 곳은 약육강식이 도사리고 있는 짐승 같은 세계였다. 사기, 강도, 매춘, 인신매매, 살인과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잡혀온 사람들이 한 방에서 지냈다. 죄수들의 눈빛부터가 달랐다. 밖에서는 천하를 호령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도 이 곳에 오면 영락없는 뼈다귀가 되어 버린다. ‘너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힌다’가 이 곳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된다. 장기수들은 신입을 보기만 하면 못 되게 굴고 텃세를 부린다. 그 와중에 허약자로 판명되어 온몸에 뼈밖에 안 남은 장기수들조차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모습을 볼 때면 무섭기는커녕 이빨 빠진 호랑이마냥 우습고 또 절망스럽다. ‘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공포심과 불안 함이 들곤 했다.

왜 감옥에서는 '콩밥'을 주는지 이 곳에서 깨달았다. 콩은 죄수들이 주된 영양소를 섭취 하게 해주는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이다. 단지 밥에 콩이 스무개 정도는 되어보였는데 그마저도 생활이 어려운 간수들이 밤에 몰래 훔쳐 간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은 콩이 비 정상적으로 적었다. 그런 콩밥에 까끔까끔한 옥수수겨를 섞어서 주었고 쌀에는 돌이 많이 섞여 있었다. 교화소 기간 내내 돌밥을 계속 먹어서 이가 많이 상했다. 옥수수 겨는 영양가가 전혀 없는지 화장실에서 그대로 나왔다. 일명 '까마귀날개국'이라고 불리는 시라지국은 염기가 아주 조금 있고 간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 '까마귀날개'는 양배추의 가장 윗 껍데기 부분인데 너무나 질겨서 씹어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칼로도 잘 잘리지 않아 도끼로 자르고 절여서 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부실한 식사 때문에 허약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영양 실조도 흔했다. 내가 있을 때는 하루에 두 명씩 죽는다는 소문도 돌았다. 당국에서는 아사에 대비를 해야했는지 허약자들에게 쥐를 먹이기 시작했다. 감옥 내의 유일한 보양식인 셈이었다. 쥐를 잡아서 내장을 제거하고 털을 불피워서 깎고 삶아서 주었다. 때로는 밥이 다 떨어져 저녁 식사를 그냥 건너뛴 적도 있었다. 저녁 내내 쫄쫄 굶다가 취침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식사를 주었다. 식사랄 것도 없이 인근에서 쌀을 빌려다가 불릴 대로 불려서 죽을 쑤어 주면 죄수들은 한밤 중에 일어나서 후루룩 마시고 다시 잠에 들었다.

나는 이러한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6개월이 넘게 걸렸다. 영화에서나 보던 콩밥을 내가 먹는다는 사실이 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철창에 앉아서 생각만 해도 막막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그 때 나는 심한 방광염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은 커녕 제대로 된 약이나 주사 하나 구하거나 치료받을 수 없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면회 날에 드디어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은 깨진 사기그릇에 물을 받아 세수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세수대야를 가져왔고 평평이 가루와 약도 챙겨왔다. 남편은 내 생일 때 다시 면회를 오겠다고 했다. 나는 다음에 올 때 주사를 꼭 챙겨와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이 싸준 도시락이 참 맛있었다. 그 당시 '사회음식'은 정말 영영 잊을 수 없는 별맛이었다. 남편이 한 번 왔다 가면 그것으로 한 달을 버텨내었다.

한달 남짓을 신입반에서 신입 교육을 받은 후 각 전문분야에 배치되었다. 나의 이름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가11번'과 같은 죄수번호가 나의 정체성이었다. 교도소 안에는 열 개의 반이 있었고, 나는 감자농사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 한 일은 두꺼운 천으로 엄청나게 큰 가방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 가방 가득 겨우내 언 똥을 나를 줄은 만드는 당시에는 몰랐다. 그나마 신입반 때가 가장 편안했던 것 같다.

신입반을 벗어나니 한 방에 오륙십 명의 죄수가 머무는 감방으로 옮겨졌다. 나를 신입이라고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이층침대 방으로 들어갔다. 아침 5시에 기상벨이 울리면 일

어나서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야 했다. 계호원의 얼굴이나 눈을 쳐다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침저녁으로 인원 점호를 하며 도망자가 없는지 점검하였고, 한 명이라도 틀리면 다같이 벌을 받는 군대식 시스템이었다. 아침 점호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옷을 차려입고 나가서 일할 준비를 했다. 나는 얼굴에 겨울수건을 두르고 똥배낭을 메었다. 단지밥이 나오면 식사를 하고 8시에 밖에 나왔다. “출력!”이라는 소리와 함께 우리 반의 모든 죄수들이 줄을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밖으로 나왔고 몸을 숙이고 뒷짐을 지고 섰다. 접수실과 복도를 지나 바깥으로 나오면 옆을 보면서 “하나!”, “둘!” 하며 점호를 하였다. 말 그대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점호만 계속하는 것만 같았다. 도망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심지어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담당형사가 권총을 차고 다녔고, 군복무하는 초병, 즉 수행원 두 명은 장총을 들고 다니며 약 백 명정도를 관리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취미였다. 도주하면 쓰라고 준 총 개머리판의 그 딱딱한 나무 부분으로 죄수들을 때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죄수들을 푸른 하늘을 볼 자격이 없었다. 옷을 수도 없었으며 간수와 죄수는 하늘과 땅 차이로 알았다. 내 죄수번호를 부르면 전속력으로 달려가 계호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다. ‘차렷!’ 자세가 고개를 숙이는 자세였고 ‘쉬어!’ 자세가 고개를 편히 드는 자세였다. 그래도 얼굴을 마주볼 수 없었다.

나가서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남한에서는 기계로 하면 될 일을 북에서는 손작업으



로 하루종일 걸려서 했다. 작업장 땅을 곡괭이로 메기도 하고, 한 톤짜리 구루마에 언 똥을 싣고 얼음장과 같은 강물을 바지를 건어올리고 건너서 강 건너편 밭으로 이동했다. 정말이지 물이 너무나 차가워 발을 딛을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만 같았다. 옥수수, 감자, 콩 등의 다양한 농작물 반이 있었는데 그나마 감자반 담당 형사가 그나마 제일 너그럽고 좋았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봐두었다가 시라지죽이나 옥수수가루 삶은 죽을 한 그릇씩 주었다.

봄은 발을 갈고 본격적으로 감자를 심는 계절이었다. 감자 씨앗이 몇 톤씩 준비되어 있었다. 땅굴을 파고 사다리를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보면 땅 밑에 널찍한 움이 무너지지 않고 판자로 설치되어있었다. 씨감자를 그 곳에 얼지 않도록 보관해뒀다가 봄에 심는 것이었다. 죄수들이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생감자와 생옥수수를 입에 우겨넣고 먹었다. 끓이지도 삶지도 못하고 날 것을 그냥 먹었다. 움에 들어가는 날만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그렇게 몰래 먹었다. 1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던 장기수들은 감자 씨를 뜨고 그 조각을 지정된 선반에 깔아놓는 역할을 한다. 좋

은 장기수를 만나면 감자가 섞인 부식을 주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별미였다.

해가 길어지면 저녁식사를 하기 전에 자투리 시간이 있었다. 가끔 그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내다보고는 ‘내가 과연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탄식했다. 저녁시간이 끝나면 교양시간이 시작되었다. 재교육의 의미로 자기 전까지 학습을 시키면서 ‘교양 개조된 떳떳한 공민’으로 자리잡도록 공부시켰다. 낮 동안의 강한 육체노동 이후에 더운 방에서 가만히 공부를 하려니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고달픈 하루 일과를 끝내고도 침대에 누워 쉴 수 없었다. 죄수들이 자는 침대는 빈대, 바퀴벌레, 쥐와 이의 온상이었다. 샤워는 커녕 세수나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이 형국에 위생관리는 전혀 되지 않았다. 우스갯소리로 한쪽 발은 점심에, 다른 쪽 발은 저녁에 씻었다. 심지어는 감자밭 옆에 강이 흐르는데 씻을 시간을 1분도 주지 않았다. 더욱이 감방 안에 화장실도 있었으니 뻗속까지 똥냄새가 났 것만 같았다.

위 아래로 각각 몇 십 명이 머리와 발을 엇갈려 누웠는데, 너무 비좁아서 옆으로 잘 수밖에 없었다. 밤에 계호원이 “취침!!!”이라고 소리를 지르면 모두 앉아있다가 일사분란하게 침대에 누웠고, 행동이 느려 눕지 못한 사람은 앉아서 잤다.

부영이가 우는 다음 날에 꼭 사람이 죽는다는 루머도 돌았다. “어젯밤에 또 부영이가 울었다. 오늘은 또 누가 죽어나가겠나.” 하며 이곳에서 부영이가 신비한 죽음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또 꿈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 어떤

꿈을 꾸면 오늘 면회가 온다는 말도 있었다. 숫자 4는 보통 죽음의 상징이지만 왠지 여기서 희망의 상징으로 변했다. 날짜에 4가 포함이 되는 날에는 그날 하루를 잘 보낸다는 말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나의 생일이 돌아왔다. 교화소에서 맞이하는 첫 생일이다. 남편은 동태국을 비롯한 갖가지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해왔다. 미숫가루, 평평이가루, 태식과 같은 요깃거리 뿐만 아니라 일할 때 필요한 장갑, 농사할 때 쓰는 발목까지 오는 신발, 시기적절하게 필요했던 약과 주사도 챙겨왔다. 힘든 감옥 생활 중 나의 유일한 숨구멍은 남편이었다.

감옥의 시간은 지옥의 터널을 걷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의 이력서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오점이라고 생각하며 내 나라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가끔씩 악몽을 꾸다. 눈을 떠보면 나는 아직도 교화소에 있다. “이제 한국은 어떻게 가지?” 하고 걱정을 하는 꿈이다. (계속) 

## + 북한, 중국산 곡물 수입 급증..."3개월 연속 1천만 달러 넘어"



〈북한 접경도시 신의주에서 주민들에게 밀가루 포대를 나눠주고 있다. 압록강 건너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모습. (VOA자료사진)〉

북한이 3개월 연속 중국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센터(ITC)가 최근 공개한 2019년 9월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액은 1천62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46만 달러와 비교해 300% 이상, 2017년의 168만 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900% 가까이 늘어났다고 VOA가 전했다.

9월 한 달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억2천752만 달러로, 이 가운데 곡물은 플라스틱류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한은 7월과 8월 각각 1천941만 달러와 1천502만 달러어치의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북한이 3개월 넘게 곡물 수입량을 늘리면서 1월부터 9월까지 곡물 수입 전체 액수는

6천579만 달러로 올라섰다.

ITC 자료에서는 북한이 어떤 곡물을 수입했는지 세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주로 수입한 곡물은 쌀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분까지 북-중 수출입 현황을 공개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는 7월 한 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1천941만 달러어치 곡물에서 쌀이 1천752만 달러, 옥수수가 185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7~9월 사이 대중 곡물 수입액이 884만 달러로, 올해 같은 기간 총액수인 5064만 달러에 비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 정부, 동해상 NLL 월선한 北 주민 2명 첫 추방... 동료선원 16명 살해 연루 혐의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이들은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11월 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다음날인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주민 2명이 살해한 동료 승선원들의 시신은 바다에 유기됐으며 해군이 나포했을 시점에 배에 남아있는 시신은 없었다. 17t 규모로 추정되는 이 선박에 20여 명에 가까운 선원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탈북한 흉악범죄자를 추방한 사례 역시 처음이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의사를 3가지 이유 하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첫번째로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며 “이들 중 한명은 일단 돌아가서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했으며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에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었다”며 “동기 그동안의 행적 등을 판단해 봤을 때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복송과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다. 먼저 나포 선박은 크기로 보아 20명이 탈 만한 배도 아닐뿐더러, 어떻게 이들이 상처 하나 없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로 이들이 귀순할 의사를 보였음에도 정부가 추방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들이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이는 범죄 후 도피 목적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설사 범죄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하며 변호할 권리,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향후 어떤 탈북자라도 정부에 의해 강제 복송될 수 있다는 부정적 선례를 남겼으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탈북민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시 송환된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는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엔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즉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역시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이라고 지적했다.

## +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결정



한미 군 당국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정도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1월 17일 밝혔다.

이날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만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 역시 연습과 훈련, 시험을 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우리는 북한이 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한반도의 연합 전력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보장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합의에 응하기 위한 문을 열어두기 위해 연습을 조정하는 우리의 의도가 자칫 우리의 공동 목표와 이익·가치를 증진 및 수호하기 위한 공약이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고 방위태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연기 결정 시점에 대해 "한미 외교 당국과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을 유지해온 만큼 어느 시점에 결정됐다가 보다 지금까지 한미 간, 북미 간 진행 중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여러 노력의 내용"이라며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 협조를 하면서 언제 다시 재개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한미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란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대대급 이하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려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처음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1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측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반공화국적대적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 인민의 분노를 더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지금까지 발휘해온 인내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새로운 해법으로 북핵문제를 다룰 것이라던 대통령의 공식입장까지 뒤집고 기존의 타당치 않는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조미관계개선과 적대관계청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만 계속 덧쌓고 있다"며 올해 진행된 '동맹19' 등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연습을 열거했다.

그러자 미국은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일정 부분 반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것으로 판단됐다.

에스퍼 장관은 '훈련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며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난 11월 15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51차 안보협의 회(SCM) 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한미 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 한미는 태국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최종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최근 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 명의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며 미측의 연합훈련 축소 검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번에 연기가 결정되면서 조만간 다시 북미가 실무협상 테이블을 마련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 북한, 초대형방사포 연속시험사격 성공

북한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차례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월 1일 보도했다.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성능 검증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차례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는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통신에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사진에는 이전 발사 때와 같은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됐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무기 성능 검증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내륙을 가로 질러 동해로 발사하는 '내륙 관통'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



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사 실험 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한 조의문을 전달했고, 일각에선 '금강산 남측 시설 철수'로 고조된 남북 갈등 국면이 풀릴 거란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그 후 24시간도 안 돼 발사체를 발사하고 말았다. 이번 발사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건드리는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었지만, 북한이 조의문 전달 하루 만에 단거리 발사체를 쏘았다는 점에서 '내식대로 가겠다'는 북한의 태도를 다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 유엔총회 3위원회 15년 연속 北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 모습〉

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4일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관련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과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

지 않았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됐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40차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졌다. 일부 환영할 만한 정치적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부터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22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

저자: 모자이크 코리아

출판사: 쌤엔파크스

발행일: 2019년 1월 25일

가격: 16,000원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이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다가올 새 날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유도 2020년과 그 이후를 위해서일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나름대로 예측해본다. 개인의 바람이 반영된 일종의 기대감이 예측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 될 때도 있고,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름의 근거를 통한 합리적인 예측을 시도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확신어린 예측이더라도 빛나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의 붕괴 여부라던지 북핵 문제 해결 여부, 북한과 남한의 경제·사회의 변화 방향 등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나리오를 통한 미래 예측은 상당히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일방적인 예측, 예상이 아닌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정리해서 그 가능성을 분석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사고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줄 수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시나리오가 근거 없는 기대와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의미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나온 합리적인 예측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닌 23명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들의 협력 연구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참신한 시도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먼저 남한과 북한의 시나리오를 4가지로 분석하고 이를 조합하여 한반도의 시나리오를 추려 다시 4가지로 정리했다.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서 저자들은 처한 맥락에 따라 남한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북한은 정권의 안정성과 인민의 다양성 성장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각각 주요 시나리오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 두가지 측면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때를 각각 설정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남과 북의 시나리오를 남북통합-남북분열, 경제성장-경제쇠퇴 두가지 축으로 놓고 다시 정리하여 한반도에 대해 4가지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했다. 설명이 복잡하지만 각각의 시나리오를 살펴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리라 생각된다. 각 시나리오의 내용은 직접 책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린다.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먼저 풍성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저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단순한 정치,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환경 이슈 등 다양한 영역을 분석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인상적이

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통일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크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과제임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시나리오 분석의 가장 큰 의의는 결국 최고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반도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사회 통합과 북한의 경제성장을 한반도 통일 전략의 양대 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남한은 좌우, 성별, 연령, 계층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체제보장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 피폐해진 인민들을 돌보는 편이 그들에게도, 한반도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러한 결론이 그저 당위적인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가지 가능성을 분석하여 나온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출판일은 19년 초로서 그 후 1년간의 한반도 스토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책의 취지가 단순한 1, 2년이 아닌 10년을 바라보는 미래 예측과 방향 제시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의미있는 독서라고 생각된다. 한반도의 시나리오가 최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읽어볼만한 책으로 소개해본다.

## 북한 기도 제목

1. 2019년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해 동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이 한반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능히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다가오는 새로운 해에도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꾸준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연 초의 기대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지지부진하였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교착상태로 빠져가는 한반도 정세를 보며 외교나 정치는 우리의 해답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가 진척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가운데 주님만이 영광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9년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시고 단속과 통제가 심해져가는 가운데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갈수록 힘겨워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이 닫히는 만큼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선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진보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고, 박해 상황의 개선과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장의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의 안전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인권 탄압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심각한 감시와 통제, 특히 극심한 기독교 박해는 하루 속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해로 순교한 이들, 또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수 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성도들 및 그 후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중단되고,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어둠 속에서도 복음이 은밀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도 북한 성도들에게 절실

한 영육간의 필요를 지원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지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겨울은 남한에 비해 더욱 혹독합니다. 그렇지만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난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식량, 의복, 의약품 등의 생필품의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의 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또한 단순히 육적인 도움을 넘어 복음의 불모지로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영혼의 겨울 가운데 하나님의 온기가 새로운 희망으로 싹틀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를 비롯하여 내지의 성도들과 주민들을 돕는 이들의 노력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점점 더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각종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까지 교회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새로운 통일의 세대가 준비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욱 북한과 통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8.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 잘 제작되고 송출되도록 기도합니다. 매일 밤 깨끗한 음질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9년 12월 1일



2020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20년 4월**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2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6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http://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의처 :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